

*사진 출처: 안양감리교회



numbers

vol. 265

한국교회 친교 실태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4명,
친구/지인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하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 ② 비혼 출산 실태 및 인식

2024. 12. 3.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4명, 친구/지인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하다!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란 용어를 대부분 한 번쯤은 접했을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인 사람들 즉 '성도 간의 영적 교제와 참여'를 의미하며, 이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제(나눔, 친교)가 없는 교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일반적 친교는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교회의 친교 수준이 얼마나 건강하고, 실질적이며,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친교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교회의 주요 5가지 영역을 들여다보는 시리즈를 기획하여 그 첫 번째로 예배 실태와 당면 과제 등을 분석하여 지난 264호에서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친교'에 관해 다룬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뤄지는 친교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 진단 및 적절한 처방 제시를 통해 친교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랑과 연합으로까지 나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친교'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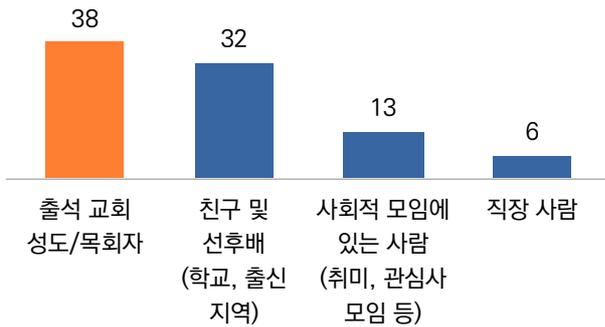
구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 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6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담임목사의 경우 교회규모별 가중치 적용)	
조사 기간	2023년 11월 7일 ~ 11월 15일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2일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신앙 성숙과 사랑을 위한 친교] 성도 10명 중 4명, 친구/지인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하다

- 성도들에게 주변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을 묻은 결과,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가 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친구 및 선후배'(32%), '사회적 모임에 있는 사람'(13%), '직장 사람'(6%) 등의 순이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보다도 같은 교회 성도에게 더 높은 친밀감을 느낀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가 가장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앙 수준과 비례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주변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 (교회 출석 기독교인, 상위 4위, %)



[그림]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를 가장 친밀감 느끼는 자로 응답한 비율 (신앙단계별,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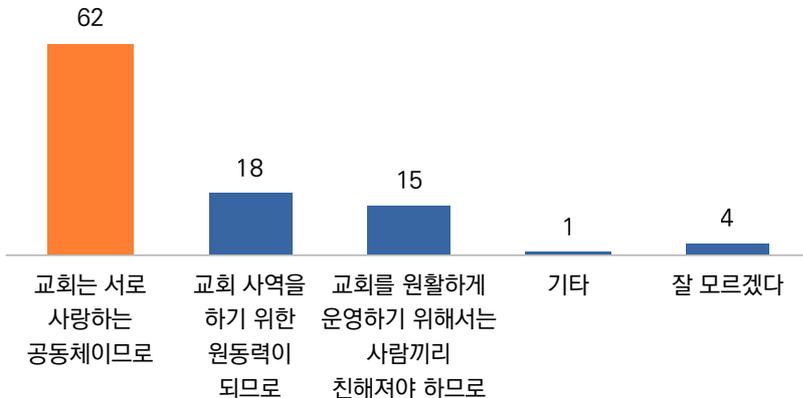
Note) 신앙단계별 설명

-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교회에서 친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친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므로'(62%)를 가장 높게 꼽았고,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므로'(18%)나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친해져야 하므로'(15%) 등 교제를 교회 사역·운영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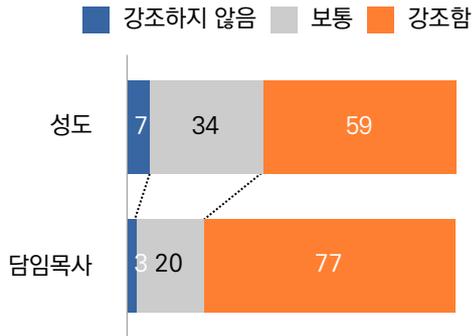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 친교/교제해야 하는 이유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설교에서 성도 간의 친교 ‘강조한다’, 성도 59% vs 담임목사 77%로 인식 차이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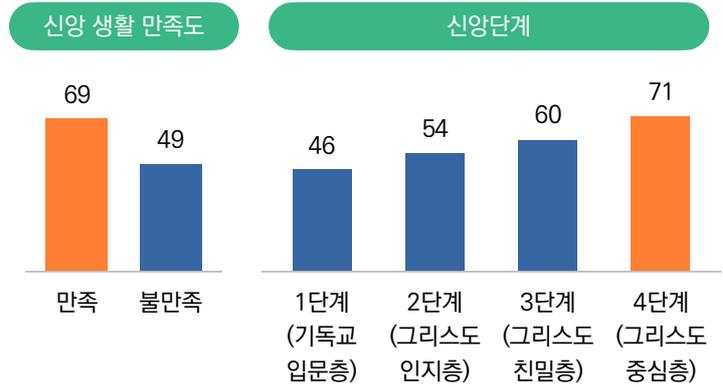
- 담임목사는 설교에서 성도 간의 친교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을까? 성도의 경우 절반 남짓인 59%가 ‘강조한다’고 응답했으나 목회자(담임목사)는 이보다 18%p나 높은 77%가 강조한다고 응답해 두 그룹 간 큰 격차를 보였다. 목회자가 설교에서 친교를 강조하는 것만큼 성도들에게는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 설교에서 친교를 강조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신앙 생활 만족도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져 ‘신앙의 성숙’ 요인이 성도 간의 친교를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 담임목사 설교에서 ‘친교/교제 강조’ 여부*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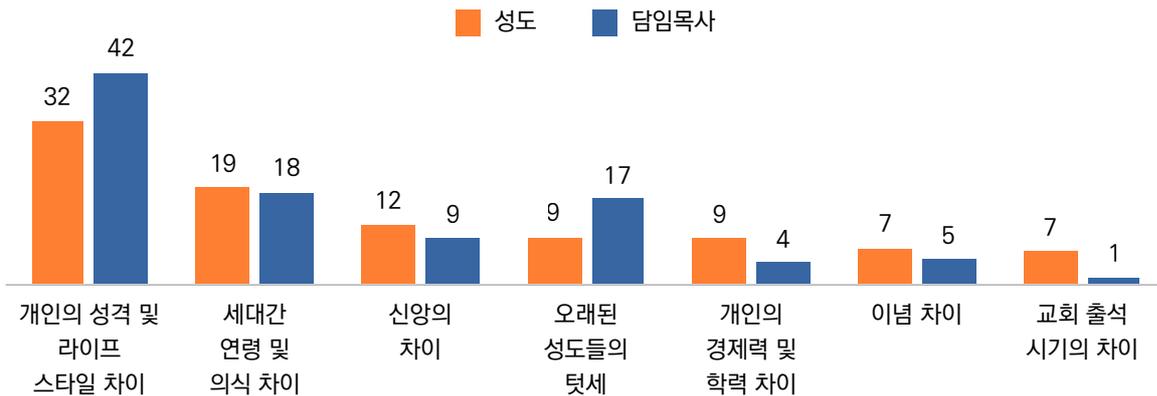
[그림] 성도 특성별 ‘설교에서 친교/교제 강조함’ 비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성도 간 진정한 친교를 위해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 극복해야

- 진정한 친교/교제를 가로막는 요인을 성도와 담임목사에게 각각 물었다. 성도와 목회자 모두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를 1위로 꼽았고, 2위도 ‘세대 간 연령 및 의식 차이’로 동일했다. 교회는 세상처럼 개인의 취향, 동질성, 나의 편안함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인식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진정한 친교/교제 가로막는 요인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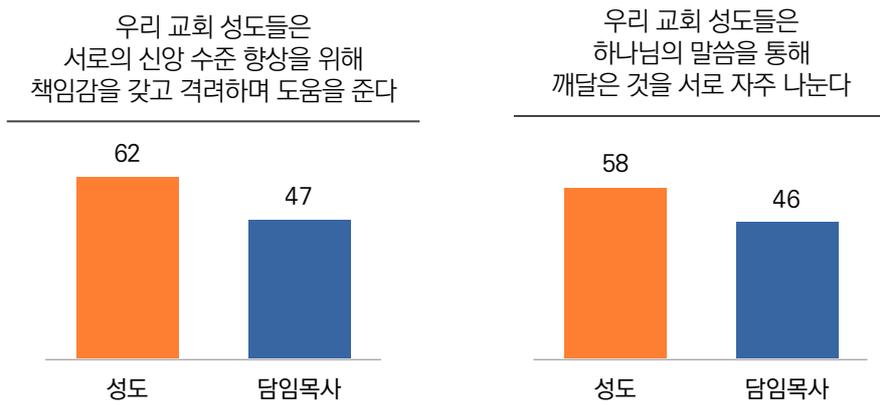


02

[신앙적 대화와 실질적 친교] 목회자들은 성도에 비해 '성도 간 신앙적 격려와 말씀 나눔'이 부족하다고 느껴

- 성도 간의 신앙적 대화에 관한 성도와 목회자의 인식을 살펴본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신앙 수준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격려하며 도움을 준다'에 성도 10명 중 6명(62%)이, 목회자는 절반가량(47%)이 동의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서로 자주 나눈다'는 성도 58%, 목회자 46%가 동의해 앞선 항목과 같이 담임목사의 응답률이 성도에 비해 10%p 이상 낮았다.
- 성도 간 신앙적 나눔에 대해 성도보다는 목회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성도 간의 신앙적 나눔 평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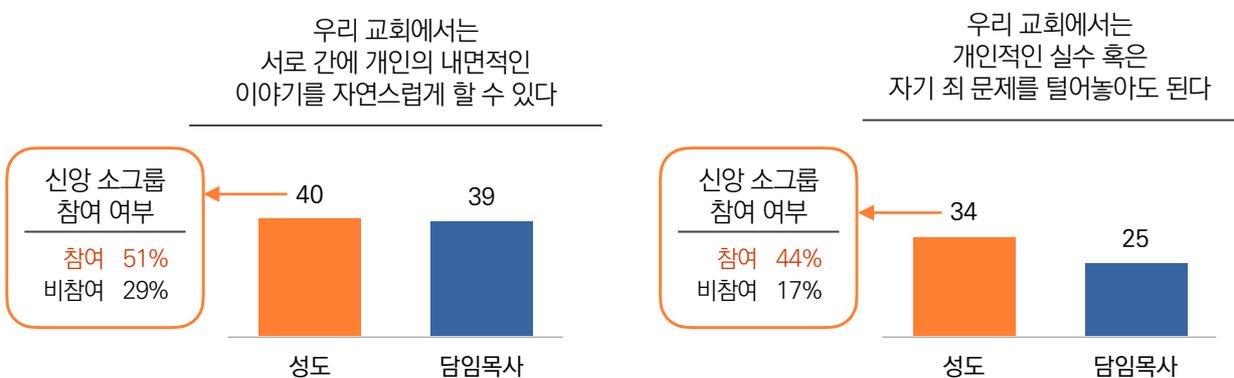


*5점 척도

신앙 소그룹 참여자, 비참여자보다 '성도 간 깊이 있는 대화' 훨씬 더 한다!

- 성도 간 개인적 대화의 수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개인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에는 성도의 40%, 담임목사 3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실수 혹은 자기 죄 문제를 털어놓아도 된다'에 대한 동의율은 성도와 목회자 각각 34%, 25%였다. 전반적으로 성도들 간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깊은 내면적 문제 더 나아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 다만 신앙 소그룹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 그룹 대비 '깊이 있는 대화'(개인의 내면적 이야기, 실수 혹은 죄 문제)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아 주목된다.

[그림] 성도 간의 개인적 대화의 깊이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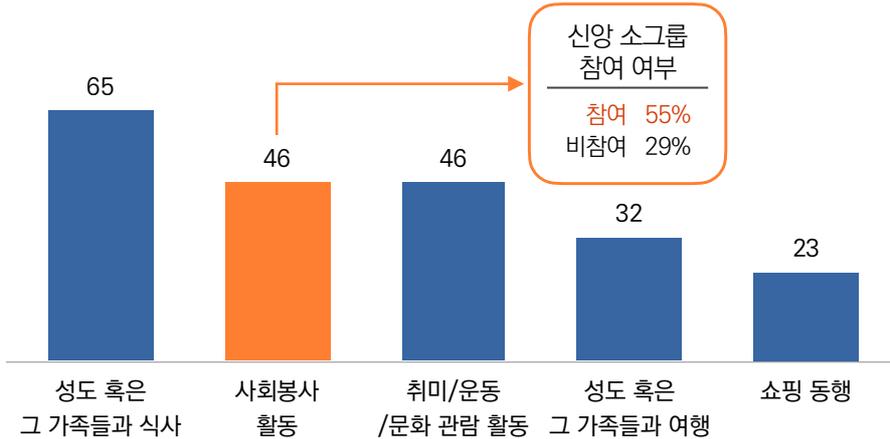


*5점 척도

성도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교제의 장으로 활용!

- 일반적인 신앙 활동 외 성도들 간에는 어떤 교제 활동을 하고 있을까? 성도들과의 교제 활동으로 '성도 혹은 그 가족들과 식사'(6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봉사 활동'(46%), '취미/운동/문화 관람 활동'(46%) 등이 뒤를 이었다.
- 성도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교제의 장으로 활용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 지역사회를 섬기고, 단순한 친교를 넘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하고 확장하는 일이기에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 '사회봉사 활동' 참여는 신앙 소그룹 참여자가 비참여자 대비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경향을 보였다.

[그림] 성도들과의 교제 활동 (교회 출석 기독교인, '자주+가끔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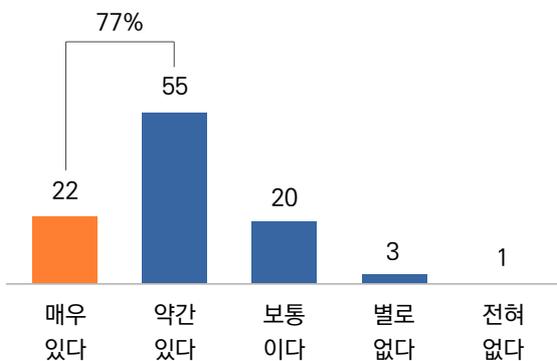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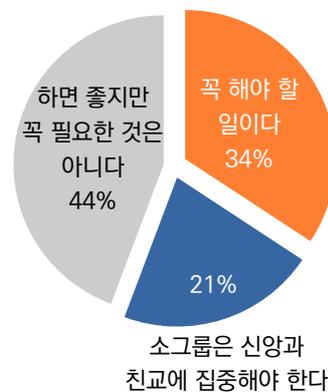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의 경우 사회봉사 의향 높지만, 목회자는 부정적!

-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에게는 '신앙 소그룹에서 사회봉사를 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목회자(담임목사)에게 '신앙 소그룹에서 사회봉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의 경우 '참여 의사 있음'(매우+약간) 비율이 77%였으나, 목회자는 '꼭 해야 할 일'(34%)이 라기보다는 '하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44%)는 소극적 의견과 '소그룹은 신앙과 친교에 집중해야 한다'(21%)는 소그룹의 사회봉사 참여에 회의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그림] 신앙 소그룹에서 사회봉사 참여 의향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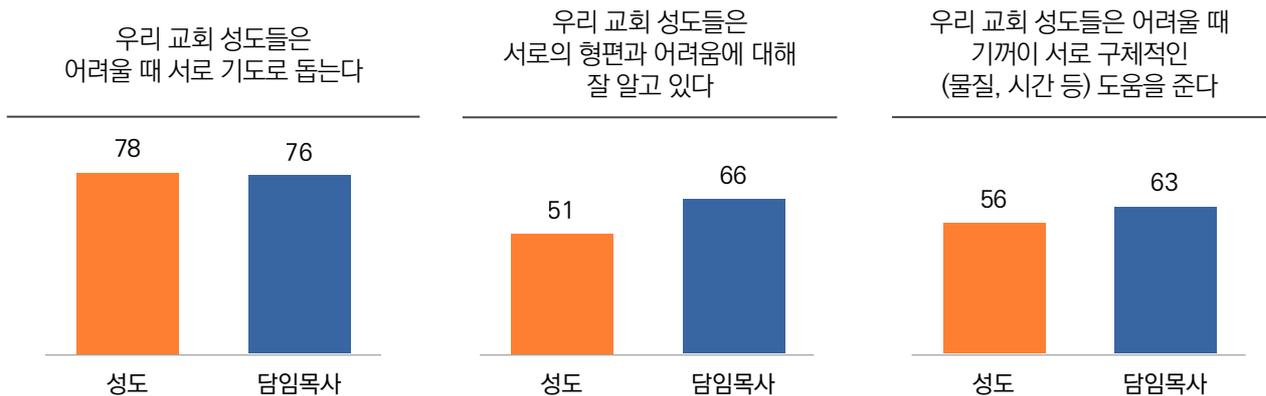
[그림] 신앙 소그룹의 사회봉사 활동 필요성 (담임목사)



성도 간 기도로는 돕지만 구체적 도움을 주는 데까지는 역부족!

- 이번에는 교회 내 성도의 실제적 친교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성도 간의 도움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성도와 목회자 4명 중 3명 이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서로 기도로 돕는다'에 동의해 중보 기도를 통한 성도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 한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어려울 때 기꺼이 서로 물질, 시간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에 대해 목회자는 각각 66%, 63%의 동의율을 보인 반면 성도는 50%대로 목회자 그룹 대비 긍정률이 낮게 나타났다. 성도보다 목회자의 긍정적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은 성도들의 실제적 필요에 대한 담임목사의 관심 및 민감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성도 간의 도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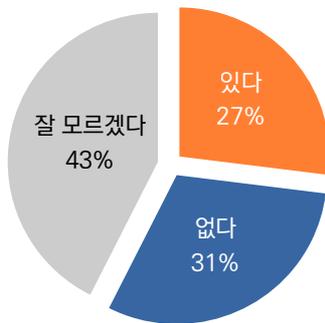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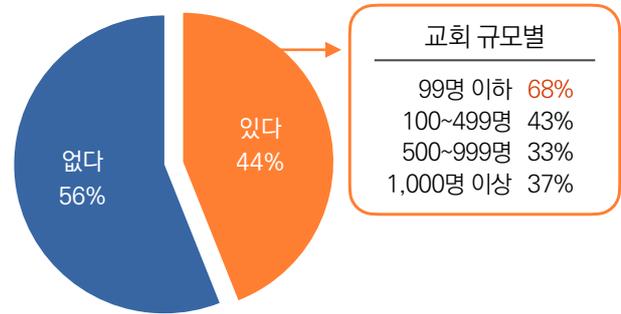
교회의 경제적 지원 제도 여부, 성도의 절반 가까이(43%) 잘 몰라!

-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성도들에게 묻은 결과, '있다' 27%, '없다' 31%, '잘 모르겠다'는 43%로 이런 경제적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는 교회 성도'에게 다시 실제 도움 요청 의향을 물었더니 절반 가까운 성도(44%)이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 '경제적 도움 요청 의향'은 교회규모별로 보면 '99명 이하'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의 지원 제도 존재 여부 (교회 출석 기독교인)



[그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의향 ('경제적 지원 제도 있는 교회'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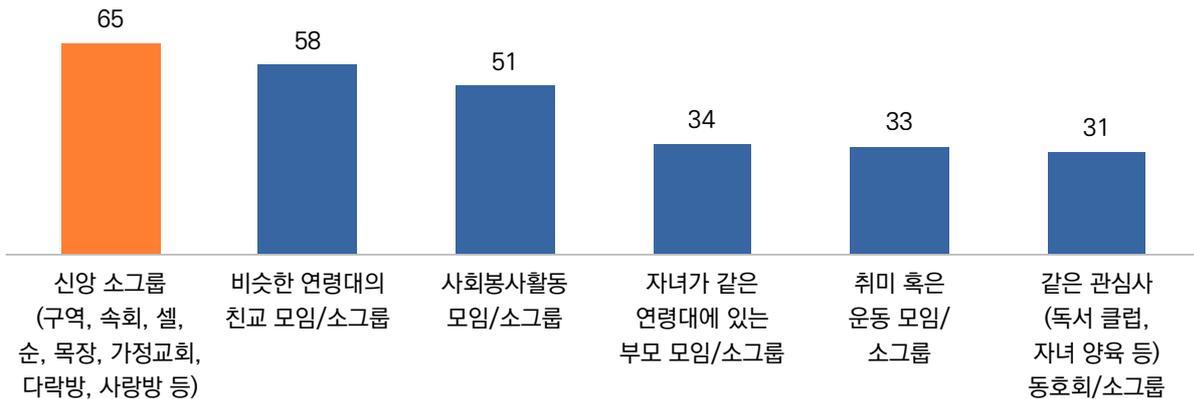
03

[진정한 친교의 장_신앙 소그룹]

교회 내 교제가 가장 활성화된 소그룹은 '신앙 소그룹'!

- 교회의 다양한 소그룹 중 어떤 소그룹에 속해서 활동하는지를 물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소그룹은 '신앙 소그룹'(65%)이었고, 다음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친교 모임'(58%), '사회봉사 활동 모임'(51%) 등의 순이었다.
- 다만 취향 소모임(취미, 같은 관심사 등)의 참여율은 30%대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그림] 참여 소그룹 (소그룹 있는 교회 성도, '정기적+가끔 참석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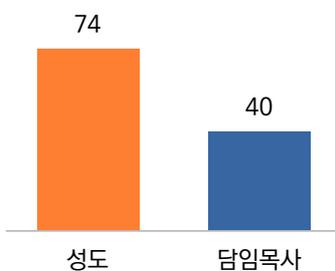


*4점 척도

소그룹 리더 만족도, 담임목사보다 소그룹 구성원이 훨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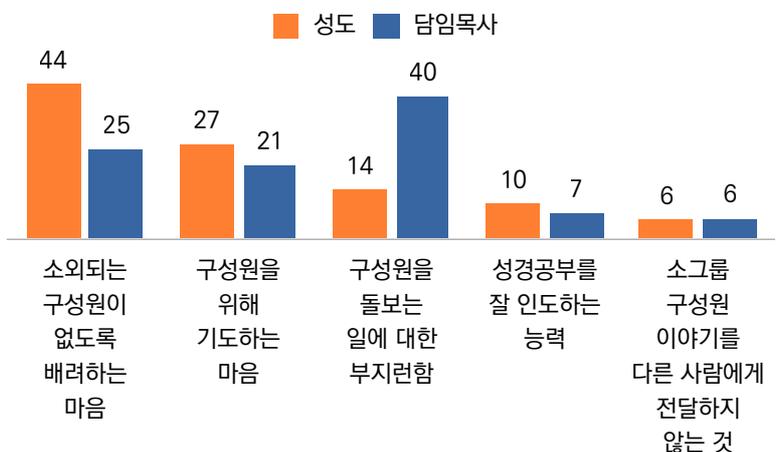
- 소그룹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신앙 소그룹 구성원들과 신앙 소그룹 운영하는 교회의 목회자는 리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신앙 소그룹의 리더 만족도를 묻은 결과, 소그룹 구성원인 성도는 4명 중 3명(74%)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의 만족도는 40%로 소그룹 구성원의 리더 만족도가 담임목사 대비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 소그룹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 소그룹 구성원은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44%)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나, 목회자는 '구성원을 돌보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40%)을 1순위로 꼽아 두 그룹 간 기대하는 리더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그림] 신앙 소그룹 리더 만족도 (신앙 소그룹 구성원/목회자, '매우+약간 만족한다' 비율*, %)



*5점 척도

[그림] 신앙 소그룹 리더의 자격 (각각 신앙 소그룹 구성원/목회자, %)



잘 운영되는 소그룹의 주 활동 내용, '삶의 나눔'!

- '신앙 소그룹'은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걸까? '일반적인 목적',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적' 그리고 '소그룹에서 잘 이루어지는 내용'을 각각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에게 물었다.
- 신앙 소그룹의 일반적 목적으로는 '신앙 양육과 성숙'과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소그룹에서 잘 운영되는 내용은 '삶의 나눔'이 가장 높았는데 소그룹을 통해 관계적 친밀감 형성이 이루어짐을 엿볼 수 있었다.

[표] 신앙 소그룹 목적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 상위 3위)

	일반적인 목적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적
1	신앙 양육과 성숙 36%	사랑의 공동체 형성 36%
2	사랑의 공동체 형성 34%	신앙 양육과 성숙 33%
3	삶의 나눔 18%	삶의 나눔 16%

[표] 신앙 소그룹 내용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 상위 3위)

	잘 운영되는 소그룹 내용
1	삶의 나눔 37%
2	사랑의 공동체 형성 31%
3	신앙 양육과 성숙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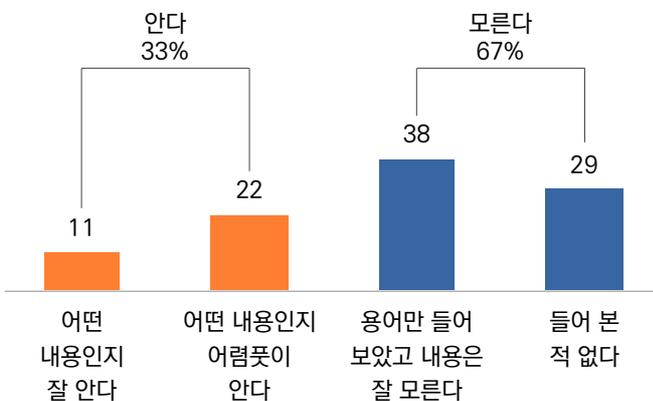
04

[친교의 확장_공교회]

한국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 중요하다', 성도 절반도 안돼!

- 성도들에게 '공교회'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안다' 33%, '모른다' 67%로 성도 3명 중 2명은 공교회라는 말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다'(잘+어렵듯이 안다)는 응답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안다'는 응답은 11%에 그쳐 사실상 '공교회'를 제대로 아는 성도는 소수에 불과했다.
- 공교회 개념을 설명하고, 이런 공교회적 역할이 한국 교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성도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치는(46%) 반면 목회자는 대다수(92%)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공교회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 큰 온도 차이를 보였다.

[그림] 공교회 용어 인지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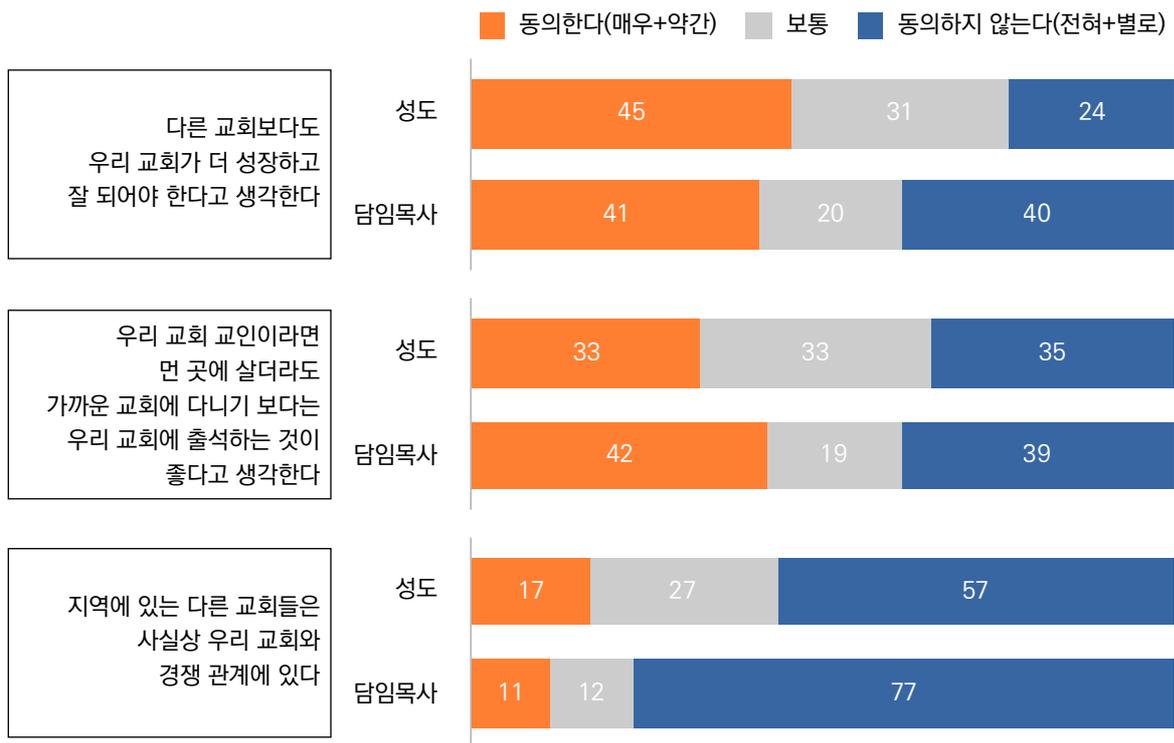
[그림]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의 중요성 ('매우+약간 중요하다' 비율*, %)



담임목사 42%, 먼 곳에 사는 성도도 가까운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택하면 좋겠다!

- 성도와 목회자의 공교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몇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응답을 받았다.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는 성도의 45%, 목회자도 41%가 동의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라면 먼 곳에 살더라도 가까운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에는 성도 3명 중 1명꼴로 동의했고, 목회자는 이보다 더 높은 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서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사실상 우리 교회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성도 17%, 목회자 11%로 두 그룹 모두 이웃 교회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림] 공교회에 대한 인식 (%)



이번호 요약

1.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4명, 친구/지인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해

- 성도들에게 주변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을 묻은 결과,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가 38%로 가장 높았고,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가 가장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앙 수준과 비례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성도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교제의 장으로 활용!

- 성도들과의 교제 활동으로 '사회봉사 활동'(46%)이 '성도 혹은 그 가족들과 식사'(65%, 1위)의 뒤를 이어 2위였는데 그만큼 사회봉사 활동을 성도들이 교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교회 내 교제가 가장 활성화된 소그룹은 '신앙 소그룹'!

- 소그룹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취미 소그룹 등 다른 모임보다 '신앙 소그룹'(65%)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앙 소그룹 참여자는 비참여자 대비 '성도 간 깊이 있는 대화'에도, '사회봉사 활동'에도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초대교회 4가지 축, 사도들의 가르침·친교·빵을 떼는 일·기도” (기독일보)
- ▶ [도서] 성도의 교제 (본회퍼, 대한기독교서회)

관련 성경 구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목회 적용점

교회에서 친교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진정한 친교 공동체, 영성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교회는 어떤 발걸음을 떼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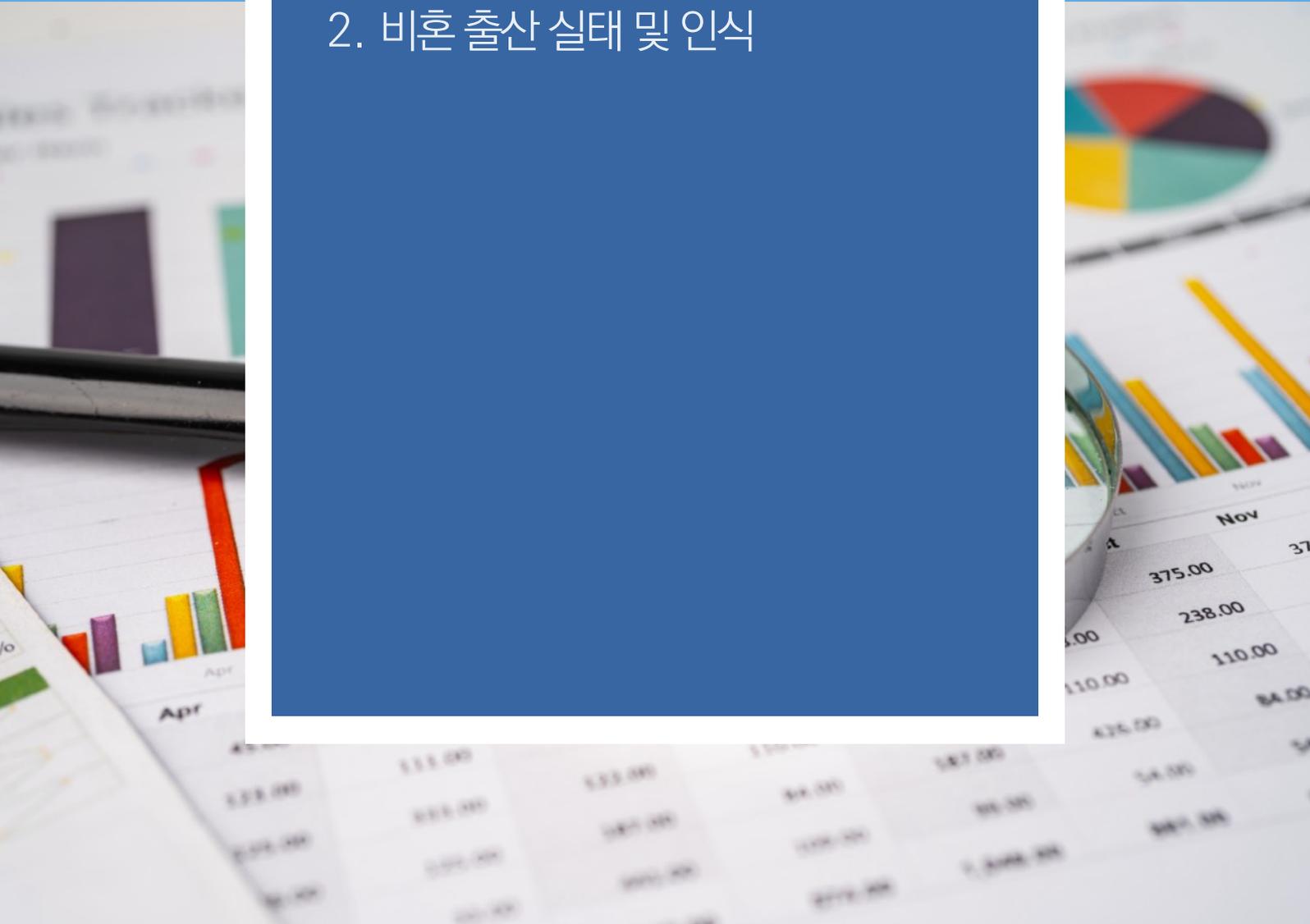
우선 개인의 차이를 넘어서는 성도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진정한 친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가장 높게 응답됐는데 개인의 취향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이다. 성도는 재산,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차이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렇다면 서로 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가치 추구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이지만 '서로 간 이해'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에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예배 측면에서는 세대통합예배를 통해 연합을 도모할 수 있고, 관계(교제) 측면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섞여 활동하는 사역 모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역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가장 교제가 활성화된 모임이 '신앙 소그룹'인데 진정한 친교를 위해서는 신앙 소그룹의 역할과 건강성 유지가 요구된다. 교회 안 교회(Church in church)인 소그룹이 그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그룹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모임 빈도를 자주하고, 모임 시간도 늘려야 한다. 최근 주일 오후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소그룹 모임 시간을 한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소그룹에서 교회 얘기, 남 얘기,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내지 않고 서로 간 삶을 진정성 있게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중요하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2. 비혼 출산 실태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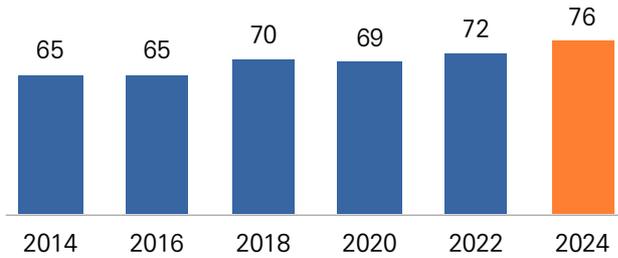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부부관계 만족도, 4명 중 3명으로 통계청 조사 이래 최고치!

- 통계청의 최근 사회조사 결과 중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즉 부부관계 만족도 결과가 흥미롭다. 2014년 부부관계 만족하는 비율은 65%였는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7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기혼자가 4명 중 3명에 달한다는 얘기이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높아지고 있는 부부 만족도는 결혼에 대해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부부관계 만족도 (13세 이상, '매우+약간 만족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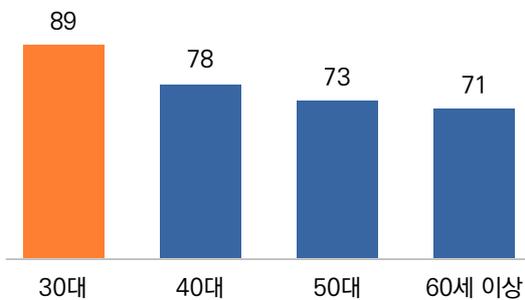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사회조사 결과, 2024.11.12.

*5점 척도

부부관계 만족도, 3040세대가 5060세대보다 더 높다!

- 연령별 부부관계 만족도(30대 이상)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30대가 89%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71%로 가장 낮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3040세대 부부관계 만족도는 5060세대 대비 크게 높아 주목된다.

[그림] 연령별 부부관계 만족도 (2024, '매우+약간 만족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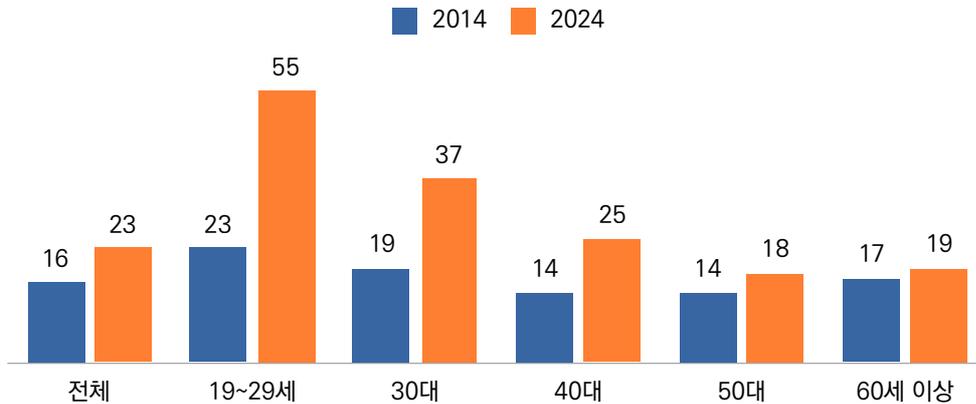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14~2024년 각 연도별 사회조사

*5점 척도

아내의 '부부 가사 분담 공평' 인식, 20대는 절반 이상(55%)!

- 이처럼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공평한 육아/가사 분담의 증가'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
한데, 실제 '우리 부부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에 대한 아내의 입장(동의율)을 살펴보았다.
- 2014년 '부부 가사 분담이 공평하다'는 인식은 16%였는데 2024년 23%로 7%p 높아졌고, 아내 연령별로 보면 20
대 아내의 경우 '가사 분담이 공평하다'에 대한 동의율이 절반을 넘어(55%) 가장 높았다.

[그림] 아내의 '부부 가사 분담 공평하다' 인식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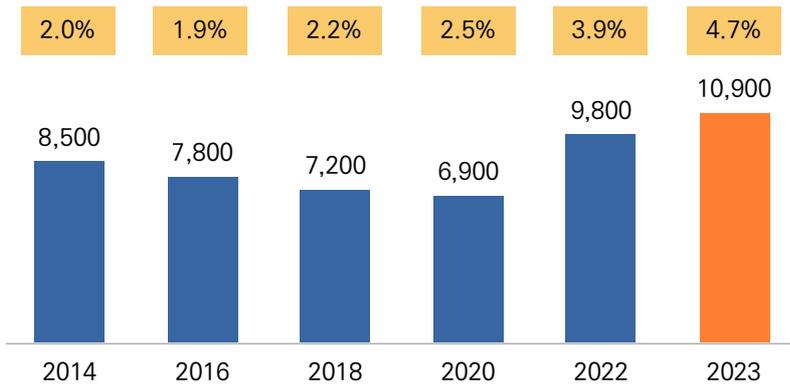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14~2024년 각 연도별 사회조사



[비혼 출산 실태 및 인식] 작년 '비혼 출생', 신생아 20명 중 1명꼴!

-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 소식으로 인해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비혼 출생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비혼 출산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살펴본다.
-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비혼 출생아 수는 2014년 8천 500명에서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 1만 900명으로 첫 1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출생아 중 비혼 출생 비율은 2023년 4.7%로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인 외 출생아인 셈이다.

[그림] 비혼 출생아 수 및 비중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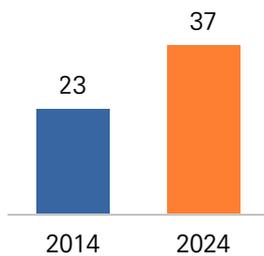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출생 통계, 2024.08.28.

우리 국민 10명 중 4명가량(37%), 비혼 출산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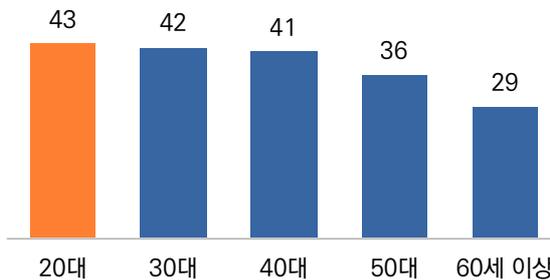
- 이번에는 13세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비혼 출산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24년 37%로 10년 전 23% 대비 크게 높아졌고, 연령별로 보면 20~40대까지는 10명 중 4명 이상이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비혼 출산에 대한 의견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동의율*, %)



[그림] 연령별 비혼 출산에 대한 의견*

(2024,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동의율**,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각 해당 연도(2014, 2024년) 사회조사

*13~19세는 제외

**4점 척도

OECD 평균 비혼 출산률 41.9%...한국(4.7%)은 꼴지에서 두 번째!

- OECD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은 어떻게? 2020년 기준 OECD 평균 비혼 출산률은 41.9%였고, 37개국 중 비혼 출산이 50%가 넘는 국가는 13개국으로 1/3수준에 달했다. '칠레'가 75.1%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5위) 62.2%, '미국'(22위) 40.5%로 조사됐다. '한국'(36위)은 4.7%로 꼴지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고, '일본'(37위)이 2.4%로 OECD국 중 비혼 출산률이 가장 낮았다.

[표] OECD국 비혼 출산 비율 (2020년 기준*, %)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1. 칠레	75.1	14. 영국	49.0	26. 이탈리아	33.8
2. 코스타리카	72.5	15. 체코	48.5	27. 독일	33.1
3. 멕시코	70.4	16. 뉴질랜드	48.3	28. 캐나다	32.7
4. 아이슬란드	69.4	17. 스페인	47.6	29. 헝가리	30.4
5. 프랑스	62.2	18. 핀란드	46.1	30. 스위스	27.7
6. 노르웨이	58.5	OECD 평균	41.9	31. 리투아니아	27.0
7. 포르투갈	57.9	19. 룩셈부르크	41.6	32. 폴란드	26.4
8. 슬로베니아	56.5	20. 오스트리아	41.2	33. 그리스	13.8
9. 스웨덴	55.2	21. 슬로바키아	40.7	34. 이스라엘	8.1
10. 덴마크	54.2	22. 미국	40.5	35. 튀르키예	2.8
11. 에스토니아	53.7	23. 라트비아	39.5	36. 한국	4.7
12. 네덜란드	53.5	24. 아일랜드	38.4	37. 일본	2.4
13. 벨기에	52.4	25. 호주	36.5		

※출처 : OECD, OECD Family Database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한국은 2023년 기준, 콜롬비아를 제외한 37개국 대상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04호 \(2024년 11월 4주\)](#)

- 위중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의대 정원 확대

사회 일반

['돌봄피크'에 삼중고 겪는 70년대생...25% "부모·자녀 이중부양"](#)

연합뉴스_2024.11.28.

['한강 효과'에 소설 판매 35.7% 늘어... 그래도 출판업계 울상](#)

여성신문_2024.12.2.

[비혼 출산도 육아지원 받는 유럽, 64%가 비혼출산... 한국은 찬반논란](#)

동아일보_2024.12.2.

[안 먹어서, 비싸서...늘어나는 '김장 졸업'](#)

연합뉴스_2024.11.30.

[국민 70% "공공외교 정책,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 된다"](#)

연합뉴스_2024.11.28.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43만명, K팝 인기만큼 뜨겁다](#)

중앙일보_2024.11.26.

[번역기 돌리는 상담원...알리·테무 문제 경험 소비자 30% "해결 포기"](#)

동아일보_2024.11.29.

[성형외과 부설 아동발달센터? 부모 불안 노린 신종 '병원 장사'](#)

조선일보_2024.12.1.

[쇼핑은 1분, 영화는 10분 요약... '시성비' 상품이 뜬다](#)

국민일보_2024.11.27.

[버려져 외려 드러난 죽음 '암장'...몇 명이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

한겨레_2024.12.2.

[이 시대 최고의 인기 장소, 홍대·연남동 아니라 '여기'](#)

매일경제_2024.11.29.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관계 맺기\(인간관계의 형태와 가치관에 관한 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11.27.

[디지털 개인정보 보안과 신기술 관련 인식 - WIN 다국가 조사](#)

갤럽리포트_2024.11.28.

[가계 형편 - WIN 다국가 조사](#)

갤럽리포트_2024.11.27.

청년 · 청소년

[일하는 청년층 비중 15년뒤 10%대 추락](#)

매일경제_2024.12.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환율, 1400원이 '뉴노멀' 된다...전쟁·트럼프·금리까지 3연타](#)

중앙일보_2024.11.30.

[대기업 중 61% “내년 ‘긴축 경영’”... 9년 만에 최고치](#)

조선일보_2024.12.1.

[중견기업 76% "트럼프 2기 한국 경제 불확실성 심화"](#)

조선일보_2024.11.26.

[당뇨 관리 25점, 피로관리 20점...기업, 직원 건강체크 낙제점](#)

중앙일보_2024.11.23.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연합뉴스_2024.12.1.

국제 · 환경

[日여성 정규직 수, 21년만에 비정규직 넘어...“인력난 속 채용 ↑”](#)

연합뉴스_2024.12.1.

건강

["성인 건강투자 비용 월 15만원...희망 건강수명 76.8세"](#)

연합뉴스_2024.11.28.

[식사 전 물 500ml 꾸준히 마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과학이 입증](#)

동아일보_2024.11.28.

기독교 · 종교

[“스님-신부님 급감, 외국서 모셔와야할 판” 고민 커진 종교계](#)

동아일보_2024.11.29.

[1만8000km ‘롱디 커플’ 사랑스런 SNS... “아~ 결혼하고 싶다”](#)

국민일보_2024.11.30.

기획기사 : [청춘, 맘몬 프리!], 국민일보

[〈상〉 주식·코인 광풍에 휩쓸려... 투자·신앙 사이서 길을 잃다 _2024.11.26.](#)

[〈중〉 투자는 권장사항... 자족·구제 통해 신앙 균형 잡아야 _2024.11.27.](#)

[〈하〉 대출로 힘드세요? 이 기회에 재정훈련 받아보세요 _2024.11.28.](#)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춘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풍성교회 (담임목사 이형동)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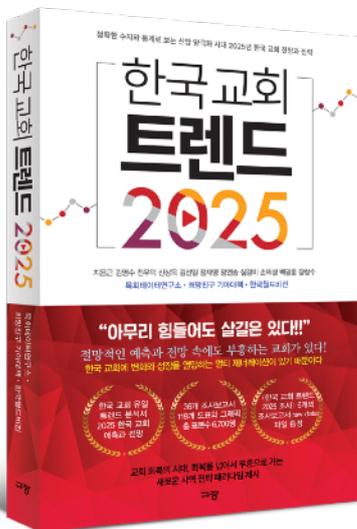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를 출간한 이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